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제8권 제1호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2010. Vol. 8, No. 1

다문화와 일반 가정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감각처리능력 비교

함보현*, 김수경**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작업치료학과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다문화와 일반 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그 자녀의 감각처리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 : 만 3~7세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19명과 일반 가정 38명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어머니와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녀의 감각처리능력에 관한 것이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기술통계, 두 집단 간의 비교는 맨 휘트니 U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양육태도는 거부적 태도(p=.000)와 자율적 태도(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을 비교한 결과, 맛/냄새 민감성(p=.004), 움직임 민감성(p=.021), 과소반응/특정자극을 찾는 행동(p=.010), 청각여과하기(p=.016),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p=.003), 시각/청각 민감성(p=.029), 총합(p=.002)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어머니 양육태도 특성과 만 3~7세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심층적이고 질적인 연구를 통해 특성을 파악하고 놀이와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감각처리능력,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양육태도

Ⅰ. 서 론

최근 10년간 한국인들의 국제 결혼이 급격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그 자녀들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기준 국제결혼이주자는 38,491건으로 전체 결혼의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다수를 차지한다(통계청, 2007).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향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곽금주, 2008).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이 직면하는 문제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문화 인식의 차이, 둘째, 언어의 소통, 셋째, 자녀교육의 어려움이 있다(권복순, 차보현, 2006; 이영주, 2007; 이혜경, 2005).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언어능력이 부족하고, 학업 성취도가 낮으며,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보건복지부, 2005;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최영인, 2006). 낮은 학습 능력과 다른 외모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부적응을 초래하며,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경우도 보고된다. 게다가 일반 아동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적응 수준이 높아지지만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을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와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이 더욱 저하된다고 하였다(이영주, 2007)

교신저자 : 김수경(kskot@konyang.ac.kr) || *이 연구는 2010년도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연구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접수일: 2010. 07. 16 || 심사일: (1차: 2010. 07. 27 / 2차: 2010. 08. 16) || 게재확정일: 2010. 09. 03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적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화이고 하나는 다문화 공존이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결혼이민여성이 알아서 적응하여 동화되기를 바란다. 아동에게 많은 자극이 필요한 시기에 결혼이민여성도 문화적응 중이며 한국어가 서툴러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양육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필요한 자극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녀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최영인, 2006). 2009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주요조사결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에 자녀양육과 학습지원(62.7%), 한국어 교육(60.4%), 한국사회적응교육(51.4%) 등이 차지했다.

농촌 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에 따른 혼란, 외모에 따른 정체성 혼란, 결정적 시기에 원활한 언어적 자극의 부족으로 인한 언어발달의 문제, 또래와의 소극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사회성 및 성격 발달의 문제 등이 나타났다(구효진, 최진선, 2007; 황상심, 정옥란; 2008).

2000년대 이후부터 국제 결혼 관련 연구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술 중심의 기초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시기로, 다문화 가정의 적응양상이 한국 가족체계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과 발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주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곽금주, 2008). 최근에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 아동들 중에서도 정서, 행동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들이 늘어가고 있다(이지연, 정민예, 2002). 아동의 초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의 하나는 어머니와 아동과의 상호작용, 애착이 관련되어 있다. 일상 작업에서 아동의 참여는 부모나 양육자, 또는 사회의 다른 기술을 가진 구성원들에게 지도를 받으며 촉진된다(Tomasello, Kruger, & Ratner, 1993; Vygotsky, 1978). 양육자와 아동의 관계는 내적이고 외적인 상호작용 모두로 구성되며, 지시와 모델링을 제공하는 것처럼 구조적인 전략, 영향을 주거나 반응을 주는 것처럼 지지적인 전략을 통해 발생한다고 하였다(Rogoff, 1990, 재인용). 아동의 양육자-아동 상호작용이 놀이 작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아이의 성공은 좀더 구조화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촉진해주는 도움이 제공된 양육자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Lisa, 2008).

서귀남(2003)은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참여한 연구에서 신체접촉이나 즐거움을 통한 감각운동 활동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감각-운동 발달이 사고, 개념, 정서, 운동 등 모든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어 이전 시기에 대한 경험을 보상하는 활동으로 대체될 수 있는 부모-아동간의 신체활동을 통해 애착이 증진된다고 하였다

감각처리는 감각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적절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경학적인 과정이다(Ayres, 1979; Fisher, Murray & Bundy, 1991). 아동의 중추신경계는 행동을 조직화 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감각정보를 사용하고,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 통합한다. 감각처리능력은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감각처리능력과 아동의 행동 및 환경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Dunn, 2001). 감각 처리의 문제는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방해하여 아동의 놀이, 일상생활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모든 아동은 감각통합 발달을 하고자 하는 큰 내적 동기(inner drive)가 있으며 감각에 대한 적응반응을 통해 신경계를 조직화해나간다. 감각통합은 연속과정이며 그 과정은 놀이 발달을 기초로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놀이 경험은 감각통합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Lindquist, Mack & Partham, 1982).

아동의 신호에 맞추어 조절한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욕구에 정확하게 일치할 때 아동과 어머니는 일종의 대화가 시작되어 어머니와 아동 모두에게 상당한 즐거움을 주게 된다(Howe, 1995). 정상적인 아동발달에서는 놀이가 자연적으로 아동의 뇌에 필요한 감각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자극에 대해서 의미 있는 방법으로 감각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상태와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정의되어지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유아의 행동 및 사회적 적응과 깊은 연관이 있다(Feldman, 1988). 양육태도는 실제 생활에서 자녀를 대하는 구체적 문화행동양식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관, 양육태도, 유아 발달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복잡 다양하게 나타난다(최혜경, 2005).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광범위한 상호작용이 가정 내에서, 특히 어머니와 함께 일어난다(최진희, 1993).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을 비교해보는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과정

본 연구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D시에 있는 이주여성센터 3곳을 이용하는 결혼이민여성 30명과 D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에서 본 연구의 참여를 승낙한 4개의 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가정 어머니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보내 자료를 모았다.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또는 설문지의 응답이 부실한 11부을 제외한 19부, 일반 가정 어머니의 설문지 45부 중 43부를 회수하여 응답이 불충분한 5부를 제외한 38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 가정 어머니(결혼이민여성)의 특성 (N=19)

변수	구분	명(%)	변수	구분	명(%)
출신나라	태국	7(36.8)	국제 결혼 경로	맞선	9(50.0)
	중국	5(26.3)		연애	5(27.8)
	필리핀	3(15.8)		종교	3(16.7)
	베트남	1(6.3)		기타	1(5.6)
	일본	1(5.3)			
	인도네시아	1(5.3)			
	몽골	1(5.3)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2(10.5)	이주 전 직업	무직	2(11.1)
	2년 이상~3년 미만	1(5.3)		회사원/사무직	7(38.9)
	3년 이상~4년 미만	2(10.5)		교사/강사	1(5.6)
	4년 이상~5년 미만	2(10.5)		자영업	1(5.6)
	5년 이상	12(63.2)		공장/기술직	4(22.2)
				서비스직	1(5.6)
				학생	2(11.1)
스스로 생각하는 한국어 수준	상	1(5.3)	가정 내 의사 소통	한국어	9(47.4)
	중상	4(21.1)		이중언어	10(52.6)
	중	12(63.2)			
	중하	2(10.5)			
한국생활 만족도	매우만족	4(21.1)	한국 생활의 어려움 (중복응답가능)	의사소통	7(36.8)
	만족	9(47.4)		문화	8(42.1)
	보통	6(31.6)		경제	8(42.1)
				음식	1(5.3)
				자녀양육	5(26.3)
한국 가족과의 관계	매우좋다	6(31.6)			
	좋다	9(47.4)			
	보통	4(21.1)			

2. 연구대상

1) 다문화가정 어머니(결혼이민여성)

D시에 있는 이주여성센터 3곳을 이용하며, 결혼한 지 만 3년이 지나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설문지를 읽고 답을 할 수 있으며, 자녀의 기준이 맞는 결혼이민여성으로 선정하였다.

2) 자녀의 기준

연령이 만 3~7세이며, 장애가 없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일반가정 어머니

D시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자녀의 연령이 만 3~7세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는 24문항이며,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는 48문항이며,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단축형 감각프로파일은 38문항으로 아동의 주 양육자가 작성해야 하는 설문지는 총 110 문항이었다.

1) 감각처리능력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Mcintosh, Miller, Shyu(1999)가 개발한 단축감각프로파일(SSP: Short Sensory Profile)을 김미선(2001)이 번안하고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단축감각프로파일은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8문항이다. 각 영역과 문항은 촉각 민감성 7문항, 맛/냄새 민감성 4문항, 움직임 민감성 3문항, 과소반응/특정자극 찾기 7문항, 청각여과 6문항, 시각/청각 민감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며 기회가 주어졌을 때 100% 이런 행동을 보이면 1점, 75% 이런 행동을 보이면 2점, 50% 이런 행동을 보이면 3점, 25% 이런 행동을 보이면 4점, 전혀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5점을 부여하며 총점은 190점이다. 문항에 대한 점수가 낮을수록 감각처리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총점 190~155점은 '정상반응', 154~142점은 '문제 가능성 있음', 141~38점은 '확실한 문제 있음'으로 해석한다.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은 .889이고(김경미, 2004), 단축감각프로파일 전체와 각 영역의 상호관련성의 범위는 .131에서 .575으로 이는 각 항목이 고유의 특성을 설명하도록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김경미, 2004).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태도에 관한 국내의 연구를 보면 이원영(1983)이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계성 연구'에서 Schaefer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경(20003)의 연구에서 검사자 간 .64~.85의 신뢰성을 입증한 측정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최혜경(2005)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의 4개 요인을 사용하여 각각의 하위 요인 별로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 영역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1점)~'항상 그렇게 생각한다'(5점)로 구성되었다.

4. 분석방법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의 비교는 대상자의 수가 실험군 19명, 대조군 38명이므로 비모수 방법인 맨 휘트니 U 검정을 사용했으며, 유의수준은 .05로 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1) 다문화 가정 어머니(결혼이민여성)의 특성

국제 결혼의 계기는 맞선이나 종교 등의 소개로 만난 것이 연애결혼의 비율보다 높았다. 연애결혼을 한 경우는 남편과의 나이차이가 적었다. 한국생활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머니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비율이 52%였다.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어 구사 능력은 중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2.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특성(1)

변수	구분	다문화 가정(N=19)		일반가정(N=38)	
		명(%)	평균± 표준편차	명(%)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연령	20대	5(26.3)		1(2.6)	
	30대	13(68.4)		31(81.7)	
	40대	1(5.3)		5(13.1)	
	50대	0		1(2.6)	
아버지 연령	없음	0		1(2.6)	
	20대	0		1(2.6)	
	30대	6(31.6)		25(65.9)	
	40대	13(72.1)		10(26.3)	
	50대	0		1(2.6)	
부부의 나이차이			7.89±4.43		2.73±1.83
함께 사는 가족	핵가족	18(94.6)		26(68.4)	
	핵가족, 조부모	1(5.3)		8(21.1)	
	핵가족, 조부모, 친척	0		4(10.5)	
가계 월소득	100만원 미만	2(10.5)		1(2.6)	
	100~200만원	10(62.6)		4(10.5)	
	201~299만원	7(36.8)		7(18.4)	
	300~399만원	0		13(34.2)	
	400만원 이상	0		13(34.2)	
어머니학력	무학	1(5.3)		0	
	초졸	1(5.3)		0	
	중졸	0		1(2.6)	
	고졸	8(42.1)		7(18.4)	
	전문대학/대학교 졸	9(47.4)		24(63.2)	
	대학원 졸	0		6(15.8)	
아버지학력	없음	0		1(2.6)	
	무학	0		0	
	초졸	1(7.1)		0	
	중졸	0		1(2.6)	
	고졸	9(47.4)		5(13.2)	
	전문대학/대학교 졸	5(35.7)		19(50.0)	
	대학원 졸	0		12(31.6)	

표 2.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특성(2)

변수	구분	다문화 가정(N=19)		일반가정(N=38)	
		명(%)	평균±표준편차	명(%)	평균±표준편차
직업	회사원/사무직	1(5.3)		0	
	교사/강사	2(10.5)		12(31.6)	
	자영업	0		4(10.5)	
	전문직	0		4(10.5)	
	가정주부	16(84.2)		15(39.5)	
	서비스직	0		1(2.6)	
	기타	0		2(5.3)	
남편직업	해당사항 없음	0		1(2.6)	
	회사원/사무직	8(42.1)		7(18.4)	
	교사/강사	0		5(13.2)	
	공무원	1(5.3)		4(10.5)	
	자영업	5(26.3)		8(21.1)	
	공장/기술직	5(26.3)		2(5.3)	
	전문직	0		5(13.2)	
	서비스직	0		4(10.5)	
	기타	0		2(5.3)	
양육 시 어려운 점	없음	0		3(7.9)	
	자녀와의 의사소통	3(16.6)		6(15.8)	
	경제적인 어려움	2(11.1)		7(18.4)	
	학습지도의 어려움	11(61.2)		15(39.5)	
	자녀의 유치원 적응	0		2(5.3)	
	자녀의 발달이 늦음	2(11.1)		1(2.6)	
	식습관, 운동습관	0		2(5.3)	
	아이통제하기	0		1(2.6)	
	엄마 나이가 많음	0		1(2.6)	
임신 및 육아 정보 습득 (중복 응답 가능)	없음	1(5.6)		1(2.6)	
	가족	14(77.8)		18(47.4)	
	친구	1(5.6)		12(31.6)	
	인터넷	2(11.1)		14(36.4)	
	책	4(22.2)		22(57.2)	
	다문화지원센터	1(5.6)		0	

표 3.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특성 (N=57)

변수	구분	명(%)	
		다문화 가정(N=19)	일반가정(N=38)
아동 나이	만 3세	6(31.6)	6(15.8)
	만 4세	4(21.1)	10(26.3)
	만 5세	7(36.8)	13(34.2)
	만 6세	2(10.5)	6(15.8)
	만 7세	0	7(7.9)
	연령 평균	55.47±13.54	62.03±12.82
아동 성별	남	9(47.4)	14(36.8)
	여	10(52.6)	24(63.2)
출생 시 체중		3.38 ± 0.42	3.22 ± 0.35
아동 출생순위	첫째	14(73.7)	18(47.4)
	둘째	4(22.2)	17(44.7)
	셋째	1(5.6)	3(7.9)

표 4.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 비교 (N=57)

단축감각프로파일	평균±표준편차		Z	p
영역	다문화 가정 아동(N=19)	일반 가정 아동(N=38)		
촉각민감성	28.47 ± 4.85	30.24 ± 3.94	−1.217	.223
맛/냄새 민감성	13.73 ± 3.66	16.68 ± 3.10	−2.886	.004*
움직임 민감성	12.11 ± 3.28	14.10 ± 1.20	−2.299	.021*
과소반응/특정 자극을 찾는 행동	26.68 ± 5.50	30.55 ± 4.22	−2.563	.010*
청각여과하기	24.16 ± 5.12	27.05 ± 3.32	−2.412	.016*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	24.84 ± 5.60	28.50 ± 2.02	−2.018	.003*
시각/청각 민감성	21.68 ± 3.06	23.45 ± 2.74	−2.183	.029*
총합	151.68 ± 22.62	170.45 ± 12.72	−3.099	.002*

*p<.05

2)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특성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이는 다문화 가정이 7.89±4.43, 일반 가정이 2.73±1.83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계 월소득은 다문화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낮은 편이었으며, 다문화 가정 어머니는 결혼 이민 전 직업을 가진 비율은 80% 인데 현재 직업이 가정주부인 비율도 80%가 되었다.

3) 아동의 특성

아동의 나이는 만 3세~7세까지 분포하며,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아동의 나이(개월 수), 성별, 출생체중, 출생순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출생 순위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첫째가 많았고 일반 가정 아동은 첫째와 둘째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2.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감각처리 능력 비교

표 4는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감각처리 능력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표 5.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양육태도 점수 비교 (N=57)

	평균 ± 표준편차		Z	p
	다문화 가정 아동(N=19)	일반 가정 아동(N=38)		
애정적 태도	44.11 ± 7.26	46.37 ± 4.44	−1.205	.228
거부적 태도	38.74 ± 4.32	43.34 ± 3.89	−3.431	.001*
자율적 태도	34.79 ± 5.68	41.58 ± 3.95	−4.303	.000*
통제적 태도	40.21 ± 5.96	40.21 ± 3.65	−.476	.634

*p<.05

아동의 감각처리능력 비교에서 총점과 하위항목 7가지에서 모두 다문화 가정 아동이 낮게 나타났으며, 총점과 하위 6개의 항목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 감각처리능력 점수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 153.22±22.62점, 일반 아동이 170.45±12.72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

감각처리능력의 하위 영역에서는 맛/냄새 민감성(p=.004), 움직임 민감성(p=.021), 과소반응/특정자극을 찾는 행동(p=.010), 청각여과하기(p=.016),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p=.003), 시각/청각 민감성(p=.029) 등의 6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

표 5는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전체 감각처리능력 점수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 151.68, 일반 아동이 170.45점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이 일반 가정 아동보다 낮게 나왔다(p=0.02).

Ⅳ. 고 찰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을 비교했다. 대상은 D시에 위치한 이주여성센터를 이용하며 자녀가 만3~7세인 결혼이민여성과 일반가정의 어머니이다.

다문화 가정은 소득이 200만원 이하이며,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차가 일반 가정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출생 시 몸무게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의 출생순위를 보면 다문화 가정 아동은 첫째가 많은 반면 일반 가정 아동들은 첫째와 둘째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결혼 년수를 볼 때 학령전기 아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양육태도에서는 자율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일반 가정 어머니에 비해 덜 거부적인 태도를 보여 아동을 좀더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덜 자율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은 이주여성센터를 통해서 한글교육과 문화생활, 취업 교육 등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한글이 아직 서투른 경우 문항을 이해하지 못해 남편과 함께 작성을 하겠다고 했으나 남편이 반대한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의 지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참여를 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도 많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해본 결과, 아이와의 놀이는 책읽기, 블록 만들기 등을 선호하였으며, 아이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아이가 뛰어다니거나 떠들 때 먼저 나서서 통제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외모를 보고 아이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경우 어머니의 책임으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있어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양육태도의 통제적 태도의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들과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아동들과 12주 간의 집단 감각통합 프로그램을 주 1회 실시하였는데 그 곳에 나오는 약 40명의 아이들과 만나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활동에 참여를 거부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놀이 참여가 어렵고 다른 친구들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아동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아동들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산만하다, 말을 듣지 않는다, 어렵다 등의 문제를 호소하지만 아이가 왜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동들의 전반적인 발달과 작업수행참여에 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김영옥, 임진숙, 정상녀(2008)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태도를 비교분석한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인 학력, 연령, 직업, 국적, 한국 입국 연수, 결혼 만족도, 자녀의 만족도, 의사소통의 수단, 자녀의 수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결혼 기간이나 한국 입국 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한국어 사용이 점차 자유로워져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경, 김경은(2009)은 만 4세 이상 유아를 둔 결혼이민여성 87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자아 존중감 및 양육 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통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사회적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남편의 지지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적응 능력을 높여주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도 반영되어 자녀에게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취하게 하고 이는 다시 자녀의 사회적 참여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집단의 선정이 D시에 있는 이주여성센터 3곳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대상자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 본 연구의 설문지는 한글로 제공되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었다. 이주 여성 중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설문 내용이 많고 어렵다는 호소를 하여 연구자나 센터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었다.
3. 아동의 실제 발달 수준과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 및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에서 점점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보고 있는 만큼(김근영, 곽금주, 배소영, 2009) 그 요소들이 자녀와 어머니 그리고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기초조사에 해당된다.
2.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내재적, 환경적인 요인을 찾아 상관성을 밝히고 어머니의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른 아동과의 상호작용 및 학업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데 아동의 감각통합 기능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주여성과 그 가정에서의 역할과 작업 일상과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의 놀이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에 대한 조사와 교육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에 관해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1.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양육태도는 거부적 태도(p=.000)와 자율적 태도(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감각처리능력은 맛/냄새 민감성(p=.004), 움직임 민감성(p=.021), 과소반응/특정자극을 찾는 행동(p=.010), 청각여과하기(p=.016),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p=.003), 시각/청각 민감성(p=.029), 총합(p=.002)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국내에서 다문화 가정의 점점 비중이 커져가고 있으며 태어난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은 지양해야 하지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단순히 한글을 교육하고 단어를 아는 것을 떠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그것은 자녀뿐 아니라 국제결혼을 선택한 남편도 마찬가지이다. 부부가 함께 자녀를 잘 양육하고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질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복순, 차보현. (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지, 58*(3), 109-134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구효진, 최진선. (2007).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43-67.

김경미. (2004). 단축감각프로파일의 타당성 연구.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2*(1), 1-10.

김근영, 곽금주, 배소영. (2009). 다문화가정 연구개관과 향후방향성, *한국심리학회지, 28*(3), 571-596.

김미선. (2001). *일반 아동과 발달장애아동의 감각처리능력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김민경, 김경은. (200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자아 존중감 및 양육 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0*(5), 119-134.

김연수. (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21*, 217-252.

대전광역시청. (2008).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 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고서*.

보건복지부. (2009).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주요 조사결과*.

서귀남. (2003). 정서행동문제 아동의 부모-아동 상호작용 훈련 사례연구.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놀이치료연구, 7*(1), 73-89.

서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 유아 교육 연구, 12*(4), 25-47.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2), 49-517.

이수경.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결혼 만족도와 유아의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이영주. (2007). 국제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83-105.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이지연, 정민예. (2002). 학령기 전 아동의 감각처리 능력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0*, 57-67.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회지. 28*(1), 73-106.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최영인. (2006).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최진희. (199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지적능력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익산.

최혜경. (2005). *유아의 인성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일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통계청. (2007). 2006년 통계자료.

행정자치부. (200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행정자치부. 서울.

황상심, 정옥란. (2008).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관련 상관연구. *언어치료연구, 17*(1), 81-102.

Ayres, A. J. (1979). *Sensory integration and the child*.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Dunn, W. (1999). *Sensory Profile: User's manual*.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Feldman. (1988). The concept of Adjustment and the Problems of Norm.

Psychological Review, 49, 284-292.

Fisher, A. G., Murray, E., & Bundy, A. (1991). *Sensory integration: Therory and practice.* Philadelphia: F. A. Davis.

Lindquist, J. E., Mack, W., & Partham, L. D. (1982). A synthesis of occupational behavior and sensory integration concepts in theory and practice, part 2: clinical application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6*(7), 433-537.

Daunhauer, L. A., Coster, W. J., Tickle-Degnen, L., & Cermak, S. A. (2007). Effects of Caregiver-Child Interactions on Play Occupations Among Young Children Institutionalized in Eastern Europ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1*(4), 429-440.

McIntosh, D. N., Miller, L. J., & Shyu., V (1999). Sensory modulation disruption, electrodermal responses, and functional behaviors.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41*, 608-615.

Rogoff, B. (1990). *Apprenticeship in think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olsy, S. S., Blanche, E. I., & Scaaf, R. S. (2000).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ensory Integration with Diverse Populations*. San Antonio: Therapy Skill Builder.

Schaefer, D. R. (1959).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Mintery, Calif: Brools Co.

Tomasello, M., Kruger, A. C., & Ratner, H. H. (1993). *Cultural learning.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6, 495-552.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Mothers' Attitude on Child-Rearing and Sensory Processing Ability of their Children in Ordinary Multi-cultural Families

Ham, Bo-Hyeon[*], B.H.Sc., O.T., Kim, Su-Kyoung[**], M.P.H.,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Konya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and compare multi-cultural families in terms of mother's attitude on child-rearing and their children's sensory processing ability.

Methods : 19 multi-cultural families and 38 ordinary families were investigated and all the targeted families had children aged 3 to 7 years. Data were collected by a questionnaire ask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ther-child; mother's attitude on rearing; and child's sensory processing ability, the Korean-translated version of Short Sensory Profile [SSP], and the Mother nurturing attitude. Data analysis has been done by Descriptive Statistics for subject characteristics and by Mean-Whitney U test for comparison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group and ordinary family group.

Results :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family groups in terms of the rearing attitude, especially in sub-item 'refusing(p=.000)' and 'autonomous(p=.000)'. Result of the SSP also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otal score(p=.002) and sub-items such as taste/smell sensitivity(p=.004), movement sensitivity(p=.021), underresponsive/seeks sensation(p=.010), auditory filtering(p=.016), low energy/weak(p=.003), visual/auditory sensitivity(p=.029).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well describe differences between multi-cultural families and ordinary families in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and sensory processing ability of the children. It is suggested to collect data regarding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child development through more profound qualitative studies in further.

Key words : female marriage immigrants,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multiple-culture family, sensory processing